

유교의 공권 안에서 불교에 매달렸던 임금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허관 지음
현대문학 펴냄
1만3천원

201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 장편소설 부문에 당선된 허관의 역사소설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진즉과 수많은 공신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이야기를 소설화 했다. 권력을 향한 집착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힘겹게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과 삶의 끝에서 참회하는 세조의 모습을 단종 애사의 역사와 함께 그렸다.

병 치료를 위해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로 원행을 떠난다. 조카를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세조와 그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모사를 꾸민 한명회, 그 과정의 한 가운데 있었던 영의정 신숙주와 김시습, 신미대사 등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한다. 정사와 야사와 픽션이 교차한다. 이 소설의 매력 중의 하나는 독백처럼 읊조리는 인물들의 대화다. 자기 발로 온전히 세상을 밟지 못하고, 늘 세상과 안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대화 속엔 부처님께 기댄 흔적들이 영려이 보인다. 또한 촌촌한 이야기 위에 인물들을 생생하게 살려놓음으로써 역사의 현장성을 살렸다. "전하의 병은 기가 혈과 함께 돌지 못하여 몸쳐서 생긴 병입니다. 전하의 마음속 그 무엇이 기를 쥐고, 혈을 막고 있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달래

든지 죽이든지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세조는 말을 잡았다. 다시 신미대사가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은 세상을 담고도 남지요. 그 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완강하게 대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괴로울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제풀에 지쳐 다시 고요해지지요. 그러나 전하의 마음은 이미 전신에 흐르는 기에 독이 가득하여 자정의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마음을 다스려 기속의 독기를 풀어놓아 좋을 듯합니다." 세조는 아팠다.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던 세조가 병을 고치고자 법주사 큰스님인 신미대사를 만나면서 소설이 시작된다. 신미대사는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을 다스려 병을 고쳐야 한다며 임금에게 불교성자인 오대산 상원사 불사와 문수동자상 조상(造像)을 권유한다. 세조는 신미대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1년 후 부처님 오신날 동자상 점안식에 참석하고자 오대산 상원사로 원행을 떠난다. 한편 세조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임금에 자리에 오르자 머리를 깎고 10년간 유랑했던 김시습은 세조의 원행 소식을 듣고 세조 암살 계획을 세운다. 김시습은 고려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세력들과 함께 오대산으로 숨어들어 임금을 살해하려 한다. 세조가 2천여 명의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오대산에 머무는 7일 동안 수시로 임금의 목숨을 노리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한편 신미대사는 윤씨 부인, 무구, 창하 등 10여 년 전에 세조가 왕위를 노리고 일으킨 계유정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점안식에 초대한다. 드디어 점안식 날 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문수동자상의 얼굴이 드러나고, 큰스님이 왜



세조가 원행을 갔던 오대산 상원사의 옛 모습.

조카의 왕위 빼앗고 괴로웠던 세조 부처님의 힘으로 괴로움 벗고 싶어해

오대산 깊은 산골까지 임금을 비롯해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지 밝혀진다.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서사와 세조, 한명회, 신숙주, 김시습 등 역사적 인물의 섬세한 내면을 교차시키면서 비극적인 역사를 입체적으로 그린다. "저들을 보아라." 마당에는 임금, 영의정, 상당군이 나란히 서서 오대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동안 난 저들을 가까이서 오래 보아왔다. 물론 그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궁궐에서 저들을 지켜봤지.

찾잔 옆에서 읽는 시

차인(茶人)의 향기

석선혜 지음 | 도반 펴냄 | 1만2천원



선혜 스님의 다시(茶詩)를 모은 시집이다. '차(茶)'는 미각의 세계이면서 사색의 세계다. 두 입술을 적시고 나면 마음속을 흐른다. '차' 한 잔에 세상이 잠긴다.

흰 구름 머물다 간 / 산봉우리 아래 / 늙은 소나무에 에워싸인 / 외딴 정자 하나 // 돌출에서 일어난 / 산바람 소리 - /누각 마루로 아단스리가 달려오면 / 산빛을 담아 달인 반야사 // 흰 구름 띄우고 / 조약돌 담아서 추억 속 구름속에 드리고 / 먼 길 떠나는 길손에게 드리고...

소설가 정찬주는 서평에서 "북두칠성의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서 밤 차를 마시고 싶어했던 다승진각각사의 시집 <무의자(無衣子)> 이래, 낮에는 차 한 잔 하고 밤에는 잠 한 손 한다는 서산대사와 차 마시며 어찌 진리를 알아 날이 멀다고 하는가! 하고 경책한 초의 선사의 다시(茶詩) 계보를 잇는 것이다. 이러한 다시전통을 계승하는 것만으로도 저자정찬주의 평단의 저울질을 떠나 (차인의 향기)는 보통 사람들 손에 쥐어져 촉박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믿어진다."고 했다.

<차인의 향기>에는 스님의 타고난 시적 감성과 그 안에서 농익은 시어들이 시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화엄의 세계를 꽃피운다. 차인으로 살아온 선혜 스님의 시 65편과 수필 4편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인	쌤앤파크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대문학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시간의 선물	성원	담양북스
8	천년사찰 천년송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9	성난 물소 놓아주기	이관 브라더	공감의기쁨
10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예담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방편과 비유의 진수를 만화로 읽는다



만화 백유경
김홍인 지음
비움과소통 펴냄
1만원

옛날 어떤 부부가 떡 세 개를 놓고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다. 한 개씩 먹고 나니 떡 하나가 남았다. 남은 떡을 두고 부부는 내기를 했다.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부부는 서로 떡을 먹겠다고 말을 참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그 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보게 된 부부는 깜짝 놀랐으나 서로 말하기를 미루며 말을 참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부 본 도둑은 이 때다 싶어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부인까지 끌고 가려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부인은 겁도 나고 화가 나서 그때서야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그 때 남편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야! 이 떡은 내 것이다." 백유경이다. 백유경이 만화로 나왔다. 백유경은 위와 같은 '우

화'들로 엮여져 있다. <백구비유경>, <백구비유집>, <비유집>이라고도 불리며 4권으로 되어 있다. 5세기 경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대승경전 가운데서 100가지의 비유를 가려 뽑아 엮은 것인데, 492년 상가세나 스님의 제자 구나브리디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됐다.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본래 100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개의 이야기가 소실되어 지금은 98가지 이야기로 되어있다. 책은 이 중에서 53가지의 이야기를 골라 만화와 함께 엮었다. 이처럼 불교경전 중에는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한 것이 있다. 12분교의 하나인 <아바다나(비유)>나 <자타가(본생경)>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보통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설명되고 있다. 백유경은 다른 경전과 구성부터 다르다. 상가세나 스님이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가세나 스님이 일반 대중에게 보다 쉽게 부처님 말씀을 알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다소 어려운 법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를 주로 모아놓았다. 따라서 <백유경>에서는 높은 교리적, 철학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백유경>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경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백유경의 중심 사상은 첫째, '방편'이다. <대살차니건지소설경> 제2권 1승품에서는 방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일체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 온갖 비탄을 뒤더라도 / 만일 방편마라함이 없다면 /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리라 / 어리석은 없되 지혜 없음을 나타내고 / 성냄 없되 자비 없음을 나타내어 /

능히 모든 중생 이롭게 하는 것/ 이를 가리켜 방편마라함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방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둘째는 '해학'이다. 대개의 경전이 엄숙해서 딱딱한 면이 있는데, 백유경은 해학적으로 불교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법을 만날 수 있다. 셋째는 '논리'다. 간단명료한 논법으로 각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넷째는 '문화'이다. 인도 고전에서 백유경 속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또 너무도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도 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짙짙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쉽게 동화시키며, 또한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경전이다. 다섯째는 '포괄적'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경이 비록 본연(本緣)에 있으나 대승의 참된 면목까지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다른 경전과 차별화된 백유경의 장점을 또 한번 차별화 했다. '만화'다. '이야기'는 만화를 만나 좀 더 빠르게 설명되고 이해된다. 따라서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주는 '행복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는 참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www.hyonjisa.com

개정판

불교서적 베스트 셀러

당신의 영혼에 꽃을 피워줄 마지막 양심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역사의 제단위에 올려놓는 수행인의 양심서.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천당, 극락 등과 같은 것인지, 불교의 윤회전생이란 진실인지 등에 이르기까지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피눈물 쏟으면서 좋은 바를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하는 이시대의 진정한 종교양심서. 이것은 책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꽃을 피워 줄 행복의 정령사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423쪽 / 정가 18,000원

부처님을 본다 / 무량광 / 견성은 공부의 시작 / 도울 말년에 대한 일갈 / 윤회전생 / 윤회를 넘어 / 불(佛)의 상신을 말한다 / 계율 /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불교 그 위대함 /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 삼매 / 청명염불 / 소·대승 불교경전 / 신통 / 지옥 / 공간 / 부처님께 공양드릴 수 있다면 천하 / 선공공덕의 보따리 / 불문의 사부중에게 / 영적 스승을 만나라 / 가섭존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 453쪽 / 정가 18,000원

붓다의 설법 / 영산불교 현자 / 석가모니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 불신론 / 무아 속 절대계 / 이제는 터럭 불교다 / 자연 연기 / (회암경) (회화경)은 방편설이 아니다 / 왜 영산불교인가? / 용신 안비인신 /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 윤회의 주체-인간 영혼의 실제 / 중생의 양심 / 무아사상 / 중생의 악행과 부처님 계율 / 염불이 정법이다 / 대적광전, 다보탑, 석가탑 /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며 열매에 이르러 / 나라가 잘 살고 가정은 평안하기를

지은이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출판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 T.033-243-1795, 243-1787 **Homepage** - http://hyonjisa.com

부산본원 - T.051-554-5150 **대전본원** - T.042-525-5325 **고성본원** - T.033-681-5515 **서울본원** - T.02-453-5953 **대구교본원** - T.053-654-5557

· 불서출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대성 교수
지속에 가 있는 독일의 자연과학자 '뒤 부아베를' (1818-1896)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 불가지론자인 프로타고라스, 인간 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칸트(1724-1804)도 데이비드 흄(1711-1776)도 모두 지승에서 온 달라는 것이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영계론과 붓다의 삼신론, 붓다의 구원론, 천도재의 필요성 등등, 인간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세기의 명저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